

1인 가구의 사회적 참여와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간의 구조적 관계

박민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차장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the Influence of Social Participation and Social Support on the Quality of Life of One-person householder

Min-Jung Park

Deputy General Manager, Department of family Policy, Work Life Balance Center,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요 약 개인주의 확대 및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1인 가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는 1인 가구를 위한 사회 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의미 있는 시사를 제공하고자, 1인 가구의 사회적 참여와 사회적 지지가 그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국내 1인 가구 54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분석 방법으로는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상관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세 변수 간의 정적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사회적 참여가 삶의 질에 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모두 유의했고,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참여와 삶의 질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1인 가구의 사회적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여 그들의 사회적 지지를 보다 공고해 나갈 수 있는 복지정책 혹은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후속연구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질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1인 가구, 삶의 질, 사회적 참여, 사회적 지지,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social welfare policies for one-person households and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ocial participation and social support of one-person householders on their quality of lif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three variables.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social participation on the quality of life were significant, and the social support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participation and quality of life.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establish a welfare policy system that can promote social support by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one-person households by providing concrete and diverse ways to activate social participation. Subsequent researches should be dealt with a more in-depth qualitative research on the concrete realization of this.

Key Words : One-person householder, Quality of Life, Social Participation, Social support,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Corresponding Author : Min-Jung Park(park6981@hanmail.net)

Received May 20, 2019
Accepted July 20, 2019

Revised July 1, 2019
Published July 28, 201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인 가구는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해 전 계층에 걸쳐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7년 인구총조사에서 1인 가구의 비율은 2015년 27.2%, 2016년 27.9%, 2017년 28.6%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25년에는 31.3%, 2035년에는 34.3%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1]. 이러한 1인 가구의 증가는 세계적인 흐름으로, 이미 인구의 30% 이상이 1인 가구인 나라(노르웨이, 독일, 프랑스 등)가 있으며, 특히, 일본의 1인 가구는 32.7%로, 도쿄의 경우, 45%에 육박하는 상황이다[2].

1인 가구의 증가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통계청의 '2018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혼남녀 비율이 10년 전에 68%였던 것에 비해 48.1%로 절반 이하로 떨어져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미혼남녀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 이는 고령화 과정에서의 사별로 인한 노인 1인 가구가 주를 이루었던 과거와 달리, 앞으로는 개인주의 확대에 따라 비혼을 선택하는 20-30대와 이혼 등 가족관계의 해체로 인한 40-50대 1인 가구의 증가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1인 가구의 증가는 출산율 문제나[4-6], 저조한 사회참여율에 대한 문제[7, 8], 그리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낮은 건강수준에 대한 문제[9-11] 등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특히 한국 사회에서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는 전통적 가족 개념의 해체로 여겨지고 있다[12].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현상에는 다양한 원인이 중층적이고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1인 가구의 발생원인과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특성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그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법-정책적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는 공동체 구성과 운영 및 존속이라는 관점에서 거시적으로는 사회적 이슈이며, 동시에 미시적으로는 개인의 행복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1인 가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인 가구증가로 인한 사회적 이슈들 중에서 정책적으로 참여를 유도하여 1인 가구의 삶의 질에 보다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참여와 사회적 지지에 대한 탐색이 선행되었다.

사회적 참여와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논의는 복지적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으며, 개인의 사회 참여는 육체적·정서적 안전 및 소속이나 인정 같은 하위 욕구뿐만 아니라 자아실현과 같은 상위 차원의 욕구를 해소하는 기회가 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담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동체 구성원이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하거나 유도하려는 정책적 시도는 사회 복지 차원에서 주요한 이슈가 된다.

특히, 사회적 참여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주거나,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지원망 역할을 하게 되고[13], 이러한 참여를 통해 정보의 흐름이 촉진되고 사회적 신임이 보증되는 것은 물론, 개인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며, 나아가 개인의 의사결정 과정에도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14]. 궁극적으로 시민의 사회적 참여가 많을수록 공동체 시민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은 물론 지역사회의 건강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15]. 특히, 관련된 선행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사회적 활동 참여 정도에 따라 개인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16], 이러한 변인들은 궁극적으로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17, 18].

이처럼 사회적 참여와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기여하는 영향력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1인 가구 생활자로 한정하고 있다. 1인 가구의 경우, 낮은 사회참여율이나, 신체적-사회적으로 낮은 건강수준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7-11].

따라서 1인 가구에서 사회적 참여와 사회적 지지, 그리고 삶의 질의 세 변수간의 어떠한 구조적 관계를 보이는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토대로,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1인 가구의 사회참여를 통해서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사회적 지지망을 통해 그들의 건강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배려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2.1 1인 가구에 대한 이해

1인 가구의 증가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제도적 가족으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탈가족화와 다양한 의미에서의 개인화 증후, 그리고 교육과 취업으로 인한 독신 선택과 함께 중년 세대에서 나타나는 이혼 급증 역시 1인 가구 증가의 중요한 이유다[2].

특히,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증가는 그 원인이 연령별로도 다양하고,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를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1인 가구에 대한 세대별 특성을 이해하고 1인 가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본고의 '1인 가구'는 통계청(2012)에서 정의한 '일반 가구 가운데 혼자서 독립적으로 취사 및 취침 등 생계를 영위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19]. 20-30대 청년기의 1인 가구의 특성은 기존 가족으로부터의 독립[20]이나, 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21] 등 자발적으로 선택한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30대 이후에도 독거생활로 고착화되거나, 그로 인한 중장기적 사회문제를 야기할 잠재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22]. 특히, 미혼율이 10% 증가하면 기혼자의 출산율이 유지되더라도 합계출산율은 10%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4-6], 1인 가구의 증가는 개인의 문제이면서도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

중년기 1인 가구의 주 형성요인은 이혼이지만[19], 가족의 욕구나 상황의 변화로 인한 별거 등 다양한 형성요인이 존재한다. 노년기 1인 가구의 증가는 자녀들의 부양회피, 황혼 이혼의 증가, 남녀 평균수명의 차이에 따른 배우자의 사망 등이 주된 이유로 나타난다[23].

1인 가구의 성별 구성 역시 이전과는 다른 변화를 보인다. 과거에는 사별로 인한 고령층의 여성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았었지만, 지금은 20-30대에 1인 생활을 시작해서 40-50대까지 1인 생활을 하는 남성이 늘어나면서 남성 1인 가구수가 268만가구로 여성 1인 가구수인 272만 가구에 근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4].

이처럼 1인 가구의 구성 원인은 세대별, 성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나타나는 개인화 현상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유기적 의존관계가 뒤틀리지 않거나, 심각하게 해체되어 구성된 간의 적대적 관계가 증폭되는 상황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개인의 고립감과 우울감을 증가시키고, 나아가 사회적 응집력이 감소하는 '응집의 위기(kohaesionskrise)'가 심화되게 하며, 가치와 규범이 통일되지 못해 사회 구성원 간 상호 이해와 의미전달이 어려워지는 '규제적 위기

(regulationskrise)'가 수반될 수 있다[2].

또한 사회복지 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1인 가구의 증가는 관련 복지비용의 증가와 관련 시설 및 인력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동일한 1인 가구라 하더라도 형성요인에는 차이가 있으며 그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 또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1인 가구의 증가현상에 따른 1인 가구의 특징과 요구를 분석하여 교육적 차원과 정책적인 측면에서 대비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25].

2.2 사회적 참여

개인의 사회적 참여와 삶의 질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 대상이 장애인이거나[26-32], 노인이거나[33-36], 결혼이주여성[37-39]과 같은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주를 이룬다. 이러한 연구에서 사회적 참여의 형태는 사회, 문화, 국가, 지역 등 개인이 속한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독립적이고 완전하게 제공되고 이루어지는 사회 참여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주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회참여는 사회적 관계, 자아 개념, 사회적 능력과 사회통합을 촉진시켜준다는 점에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40-42]. 특히, 1인 가구는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일상적 지원, 재정적 지원, 심리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점[19]과 독신으로 살아가는 생활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타인과의 상호작용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고 체념하면서 개인의 사회적 지지기반이 약화되고 고립화의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다[8]는 점에서, 1인 가구의 생활환경, 행동범위를 이해하고, 그들의 인적 관계 네트워크에서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2.3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SocialSupport)란, 개인에게 있어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받는 애정, 수용 및 관심 등의 모든 긍정적 자원을 의미한다[43-45]. 또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부정적인 결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일반적 지지나 특별한 지지행동에 대한 개인의 지각을 의미한다[46].

본 연구에서는 MacDonald(1998)에서 분류한 도구적지지, 평가적지지, 정보적지지, 정서적 지지의 4가지

사회적 지지 유형으로 연구를 진행했다[47]. 도구적 지지는 물질, 현금 등의 물질 자원이나 노동의 제공으로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적 지지는 격려, 인정, 칭찬 등 개인의 존재나 노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제공하여 내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북돋워 주는 것이다. 정보적 지지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다양한 정보적 자원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사회적 지지라 할 수 있다. 끝으로 정서적 지지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적 지지는 개인의 불안이나 우울감을 줄여줄 수 있으며, 이러한 정서적 지지를 통해서 자신이 받고 있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다.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개인이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극복해 갈 수 있는 힘을 사회적 지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힘은 개인이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게 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자신이 겪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잘 견뎌내고 대처할 수 있게 한다[48]. 이러한 이유에서 사회적 지지는 1인 가구가 직면하게 될 '응집의 위기(kohaesionskrise)'와 '규제적 위기 (regulationskrise)'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가 1인 가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본 연구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국내 1인 가구이며 자료 수집을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지 응답에 앞서, 본 연구의 목적 및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9년 1월 2일부터 2월 18일까지이며, 전체 560부의 설문지 수거되었고,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 13부를 제외한 총 547부의 설문지 분석에 이용되었다. 설문응답에는 약 10~15분 가량 소요되었다.

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했다. 성별은 남성 307명(56.1%), 여성 40명(43.9%)이었으며, 연령대는 30대 180명, 40대 170명, 50대 65명, 60대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N=547)

Division		N	%
Sex	Male	307	56.1
	Female	240	43.9
Age	20's	90	16.5
	30's	180	32.9
	40's	170	31.1
	50's	65	11.9
	More than 60's	42	7.7
Marital status	Single	387	70.7
	Divorce	38	6.9
	Bereavement	22	4.0
	Married	100	18.3
Housing Type	Detached house	59	10.8
	Apartment	252	46.1
	Alliance / Villa	84	15.4
	Officetels	52	9.5
	One room	84	15.4
	Goshiwon	4	0.7
	Dormitory	4	0.7
	Other	8	1.5
Type of residence	Owner-occupied	223	40.8
	Charter	171	31.3
	Monthly	149	27.2
	Other	4	0.7
Education	Below middle school level	10	1.8
	High school graduate	74	13.5
	College graduate	411	75.1
	Graduate school	52	9.5
Income	Less than 2 million won	110	20.1
	Less than 200 ~ 3 million won	136	24.9
	Less than 300 ~ 4 million won	132	24.1
	Less than 400 ~ 5 million won	89	16.3
	More than 5 million won	80	14.6
Occupation	College student	20	3.7
	Job preparation	11	2.0
	Office workers	390	71.3
	Business	58	10.6
	Part time job	25	4.6
	Inoccupation	31	5.7
	Other	12	2.2
Type of work	Regular workers	404	73.9
	Contract worker	53	9.7
	Temporary job	25	4.6
	Daily workers	16	2.9
	Inoccupation	45	8.2

이상 42명으로 30-40대가 전체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결혼형태는 미혼 387명, 이혼 38명, 사별 22명, 기혼 100명으로 전체의 81.6%가 현재 혼인상태가 아니었으며, 주택은 단독주택 59명, 아파트 252명, 연립/빌라 84명, 오피스텔 52명, 원룸 84명, 고시원 4명, 기숙사 4명, 기타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형태는 자가 223명, 전세 171명, 월세 149명, 기타 4명이었으며, 학력은 중졸 이하 10명, 고졸 74명, 대졸 411명, 대학원졸 52명으로, 소득은 200만원 미만 110명, 200~300만원 미만 136명, 300~400만원 미만 132명, 400~500만원 미만 89명, 500만 원 이상 8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대학생 20명, 취업준비생 11명, 직장인 390명, 사업 58명, 아르바이트 25명, 무직 31명, 기타 12명이었으며, 근무형태는 상용직 404명, 계약직 53명, 임시직 25명, 일용직 16명, 무직 45명, 기타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3.2 측정도구

3.2.1 사회적 참여

응답자의 사회 참여를 측정하기 위하여 Magen & Perterson(1997)가 개발한 척도[49]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했다. 총 21개의 문항으로 하위영역 3개 및 사회참여 활동 빈도 또는 종류에 관한 10문항, 사회 참여에 관한 긍정적인 태도 5문항, 사회 참여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6문항으로 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써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참여활동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문항내적합치도 계수는 사회적 참여빈도 .86, 사회적 참여태도 .86, 사회적 참여만족 .91, 전체 .97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Questionnaire construct and reliability of social participation scale

Sub-factor	Item number	Question number	Cronbach's α
Frequency of social participation	1, 2, 3, 4, 5, 6, 7, 8, 9, 10	10	.86
Social participation attitude	11, 12, 13, 14, 15	5	.86
Satisfaction with social participation	16, 17, 18, 19, 20, 21	6	.91
Total Question number		21	.97

3.2.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했다[50]. 척도의 하위영역은 총 25문항으로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 요소는 정서적 지지 7문항, 정보적 지지와 물질적지지, 평가적 지지는 각각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된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척도의 문항내적합치도 계수는 정서적지지 .90, 정보적지지 .88, 물리적지지 .91, 평가적지지 .89, 전체 .97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Questionnaire construct and reliability of social support scale

Sub-factor	Item number	Question number	Cronbach's α
Emotional support	1, 2, 3, 4, 5, 6, 7	7	.90
Informative support	8, 9, 10, 11, 12, 13	6	.88
Physical support	14, 15, 16, 17, 18, 19	6	.91
Evaluative support	20, 21, 22, 23, 24, 25	6	.89
Total Question number		25	.97

3.2.3 삶의 질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WHO가 제작한 WHOQOL-BEF를 민성길 등(2002)이 번안한 한국판 WHOQOL-BEF를 사용했다[51].

한국판 WHOQOL-BEF의 각 문항은 1-5점까지 평정된다. 한국판 WHOQOL-BEF은 5개의 하위요인 즉, 일상생활 수행능력, 신체적 영역, 심리적 영역, 사회적 관계 영역, 주거환경 영역 등으로 26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문항내적합치도 계수는 일상생활수행능력 .84, 신체적 영역 .67, 심리적 영역 .86, 사회적 영역 .67, 주거환경 영역 .86, 전체 .95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Question quality and reliability of the quality of life scale

Sub-factor	Item number	Question number	Cronbach's α
Ability to practice everyday life	1, 2, 3, 4, 5, 6	6	.84
Physical area	7, 8, 9	3	.67
Psychological area	10, 11, 12, 13, 14, 15	6	.86
Social area	16, 17, 18, 19, 20	5	.67
Residential environment area	21, 22, 23, 24, 25, 26	6	.86
Total Question number		26	.95

3.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과 AMO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했고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항내적합치도 계수를 산출했다. 셋째, 측정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했으며 자료의 정규분포 가정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값을 확인했다. 넷째, 각 변인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했다. 다섯째,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모형의 타당도를 확인했다. 여섯째, 각 변인 간의 경로계수와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했다.

4. 연구결과

4.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의 일반적 경향성과 정규분포 가정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산출했고 그 결과를 Table 5.에 제시했다. 분석 결과는 측정 변인의 왜도 범위는 $-0.49 \sim 0.14$, 첨도 범위는 $-0.00 \sim 0.66$ 으로 나타났다. 왜도의 절대값이 3보다 작고 첨도가 10보다 작으므로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함을 알 수 있었다[52].

다음으로 주요 변인 간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6.에 제시했다.

분석결과, 사회적 참여는 사회적 지지($r=.86, p<.001$),

삶의 질($r=.78, p<.001$)에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선행연구와 그 결과를 같이 하는 것으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두 변수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r=.72, p<.001$)에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인 가구에 있어 사회적 지지가 그들의 삶의 질에 보다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 한 결과라 할 수 있다.

Table 5. Statistical analysis of major variables (N=547)

Major variables	Average	Standard Deviation	skewness	Kurtosis
Social participation	3.20	.68	-.18	.25
Frequency of social participation	3.18	.68	-.15	.00
Social participation attitude	3.18	.75	-.23	.27
Satisfaction with social participation	3.24	.78	-.42	.47
Social support	3.36	.65	-.41	.66
Emotional support	3.37	.68	-.49	.63
Informative support	3.37	.68	-.35	.51
Physical support	3.36	.71	-.40	.44
Evaluative support	3.34	.68	-.33	.27
Quality of life	3.31	.60	-.11	.25
Ability to practice everyday life	3.35	.66	-.27	.26
Physical area	3.43	.67	-.16	.24
Psychological area	3.15	.75	-.19	-.00
Social area	3.28	.59	.14	.46
Residential environment area	3.38	.66	-.23	.25

Table 6. Correlations analysis of major variables

	Social participation	Social support	Quality of life
Social participation	1		
Social support	.86***	1	
Quality of life	.78***	.72***	1

***p <.001

4.2 측정모형 분석

구조모형을 분석하기 전에 측정모형을 평가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을 타당하게 구성하고 있는지를 검증했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NFI, TLI, CFI, RMSEA로 판단했다. NFI, TLI, CFI는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53, 54]. RMSEA는 .05 미만이면 좋은 적합도, .08미만이면 괜찮은 적합도, .10 미만이면 보통 적합도,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55]로 판단한다. 본 연구의 측정모형 적합도 지수는 NFI=.954, TLI=.950, CFI=.961, RMSEA=.098인 것으로 나타나 허용할만한 모형임을 알 수 있었다. 잠재변인을 구인하는 측정변인의 요인 부하량을 Table. 7과 Fig. 1에 제시했다. 요인 부하량의 범위는 사회적 참여가 .88~.91, 사회적 지지는 .90~.94, 삶의 질은 .75~.90로 나타나 Ford, MacCallum과 Tait(1986)가 제안한 최소 기준인 .40보다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2개의 측정변인과 3개의 잠재변인으로 구성된 측정모형의 타당도가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56].

Table 7. Path coefficient of measurement model

Variables		B	β	S.E.	t
Social participation	->Frequency of social participation	.87	.88	.03	29.68***
	->Social participation attitude	.98	.91	.03	31.21***
	->Satisfaction with social participation	1.00	.89		
Social support	->Emotional support	.95	.91	.03	36.13***
	->Informative support	.97	.94	.02	40.49***
	->Physical support	1.00	.92		
	->Evaluative support	.93	.90	.03	34.87***
Quality of life	->Ability to practice everyday life	1.07	.90	.04	28.21***
	->Physical area	.94	.78	.04	22.27***
	->Psychological area	1.19	.89	.04	27.87***
	->Social area	.90	.85	.04	25.71***
	->Residential environment area	1.00	.85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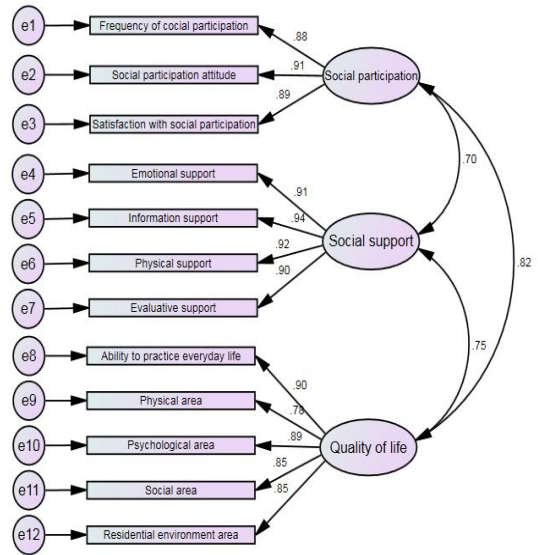


Fig. 1. Factor loading of the measurement model

4.3 구조모형 분석

사회적 참여가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적 지지를 통해 삶의 질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 모형을 설정했고 이를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Table 8과 Fig. 2에 제시했다.

분석결과, 사회적 참여는 사회적 지지($\beta=70, p<.001$)와 삶의 질($\beta=58, p<.001$)에 정적영향, 사회적 지지는 삶의 질($\beta=35, p<.001$)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참여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이 높아지며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적 참여가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에 기여한다는 선행연구[16, 26-37]와 일치하는 것으로 1인 가구 역시, 사회적 참여를 통해서 사회적 지지가 공고해지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1인 가구의 사회적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방안 마련의 기초가 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간접효과에 있어서 사회적 참여는 삶의 질($\beta=.25, p<.001$)에 유의미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참여가 사회적 지지를 거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회적 참여는 삶의 질에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모두 유의미하고,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참여와 삶의 질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사회적 참여가 삶의 질에 있어 가지는 유의미

한 효과는 앞서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타인으로부터 얻게 되는 긍정적인 정서반응[43-45]이나 부정적인 것을 견딜 수 있게 하는 힘[47]을 넘어서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하는 주요한 자원임을 확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1인 가구의 사회적 지지망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마련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Table 8. Final model effect analysis

Route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Social participation -> Social support	.70***	-	.70***
Social participation -> Quality of life	.58***	.25***	.83***
Social support -> Quality of life	.35***	-	.35***
R2	Social support =.49 Quality of life =.74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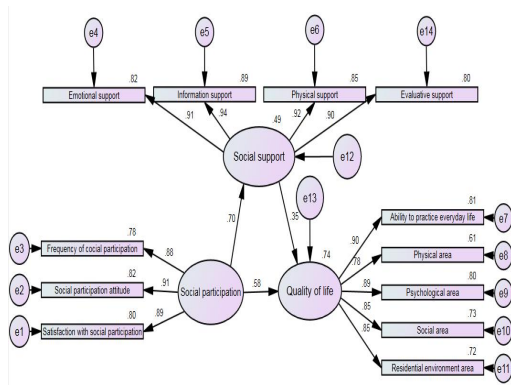


Fig. 2. Final model effect analysis

5. 결론 및 논의

통계청이 2018년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홀로 생활하는 ‘1인 가구’는 2000년 222만 가구에서 2017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한 562만 가구로, 현재 가장 주된 가구형태가 되었다[1]. 이에 특정 연령층에 국한된 현상으로 논의되어 오던 1인 가구와 관련한 담론들은 점차 1인 가구의 형성 배경 및 특성에 대한 논의로 확대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국내 관련 논의에서 1인 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학력수준과 소득수준이 낮고 고용안정성이 불안한 상황에서 고립감을 느끼는 대상이

며, 연구 목적 역시 그들의 불안감을 줄여주기 위한 대안을 찾는 것이[57-59]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1인 가구의 소득 수준을 살펴보면, 30대의 경우 균등화소득이 266만 1004원으로 다인가구 균등화소득 252만9233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60]. 이는 1인 가구의 직업군 구성에 있어서 관리자·전문가·사무직 등의 ‘화이트칼라’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30대 1인 가구의 ‘화이트칼라’의 비율(62.3%)이 같은 연령대의 다인 가구(51.7%)보다 높고, 학력에서도 대졸 이상의 비율이 다인 가구(51.9%)보다 1인 가구(62.2%)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가장 주된 형태의 가구유형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 중심의 복지정책을 펼치는 것은 한계가 따르며, 향후 1인 가구의 복지정책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그들의 빈곤구제가 아닌 행복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의 사회적 참여와 사회적 지지가 그들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살펴보고자 했다. 연구결과, 사회적 참여가 사회적 지지를 거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참여가 삶의 질에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가 사회적 참여와 삶의 질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1인 가구에 대한 복지정책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하는 주요 가치가 무엇인지 확인했다.

사회적 참여란 한 개인이 삶의 전 과정을 통해 자신의 행동반경을 확산시키면서 자신의 관계망을 넓혀가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사회구성원으로 자신의 몫을 담당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61].

WHO(world health organization)는 인간의 ‘건강’을 단순히 육체적, 정신적으로 병이 없는 상태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활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참여가 개인의 건강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내포하는 것이며, 건강한 개인의 활발한 사회참여는 건강한 지역 공동체 건설의 핵심적 요인[15]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사회참여 활동은 다른 사람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어려운 일이나 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거나 사회적 지지를 해 줄 수 있는 지원망 역할을 하여[62, 63], 사회적 지지로 이어질 수 있게 하기에 1인 가구의 사회참여 활동을 독려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한편, 개인은 사회적 존재로서, 주변의 사람들과의 상

호작용을 통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이를 통해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심리적인 적응과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를 받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주변 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64, 65], 이와 반대로 사회적 지지의 부재 및 부족은 불안과 우울감 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나[66], 사회적 지지가 위기 상황에 있는 개인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67]. 따라서 사회적 지지가 개인이 받는 스트레스를 보다 잘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1인 가구의 사회적 지지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활발한 사회적 참여를 통해서, 개인의 자아개념을 재확인하는데 필요한 역할지지를 제공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68]. 또한, 거대사회에서 느낄 수 있는 개인의 소외감을 감소시키고, 인간의 잠재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써, 그 자체가 목적이 되기도 한다[69]. 따라서 사회적 지지 증진 통한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원 사업으로 교육프로그램의 역할과[70,71], 사회적 지지 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조성이 중요하다[72]. 따라서 1인 가구의 사회적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1인 가구의 사회적 지지를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는 복지 정책 시스템이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1인 가구의 사회적 참여와 이를 통한 사회적 지지 및 삶의 질과의 관계를 객관적 관점에서 논의한 것으로, 1인 가구의 응답을 양화하여 표피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는 한계가 발생하며, 이는 연구 패러다임의 한계이기도 하다. 때문에 1인 가구의 사회적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사회적 참여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망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후속 연구가 요구되는 바이다. 특히, 다양한 형태의 1인 가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주의 패러다임을 지향하는 질적 연구를 통해 1인 가구의 관련 경험을 심층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이제 1인 가구는 빈곤계층이나, 비정상가족의 논의에서 벗어나, 전 연령층에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1인 가구가 직면한 경제적인 문제 상황의 해결책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질 개선을 통한 행복증진방안에 대한 고민을 구체적으로 시작해야 할 때이

다.

특히, 1인 가구의 사회적 참여는 그들의 삶의 질에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모두 유의미하고,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참여와 삶의 질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은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1인 가구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적 지지망 확보에 대한 구체적 논의에 대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이 1인 가구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통제변수로 활용할 수 없는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1인 가구의 삶의 질 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1인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에 대한 보다 섬세한 접근이 요구되는 바이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2018). *2017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2/2/index.board?bmode=read&bSeq=&aSeq=370806&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Target=title&sTxt=
- [2] M. J. Lee. (2016).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single-person households is due to higher education, employment and aging, *Nara economy*, 2016(12), 30. <http://eiec.kdi.re.kr/publish/nara/issue/view.jsp?idx=10797&pp=10&pg=3>
- [3] Statistics Korea. (2019). *Social Indicators in 2018*. <http://kostat.go.kr/portal/eng/pressReleases/1/index.board?bmode=read&aSeq=371114>
- [4] S. Y. Lee. (2012). The Change of Marital Status in Korea: 1995~2010, *Family and Culture*, 24(3), 34-64.
- [5] Y. C. Byeon, D. H. kim & S. H. Lee. (2010). *A study on changes in marriage patterns and their impact on the fertility*,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https://www.kihasa.re.kr/web/activity/research/view.do?menuId=39&tid=72&bid=93&division=003&ano=1094>
- [6] E. Y. Choi & Y. S. Park. (2009). *Analysis of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Analysis of fertility by region*. The second half of 2009 Research Report Volume III, (pp.126-264), Seoul: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http://kostat.go.kr/edu/sri_kor_new/1/4/index.board?bmode=read&aSeq=369673&pageNo=22&rowNum=10&amSeq=&sTarget=title&sTxt=
- [7] H. J. Kim & K. S. Kim. (2015). A Study on the Variables Influencing Suicidal Ideation in Single Person Households : Targeting One Gu in Gwangju. *Journal*

-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3(6), 115-128.
DOI : 10.7466/JKHMA.2015.33.6.115
- [8] M. J. Kim, Y. J. Choi & S. S. Lee. (2014). An Exploratory Study of the Characteristics of One-Person Household and Its Social Implication. *Social Science Research*, 27(1), 229-253.
- [9] K. H. Jung, et al. (2012).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Focused on the increase of single person households in Korea*.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pp.1-410),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https://www.kihasa.re.kr/web/publication/research/view.do?pageIndex=38&keyField=&key=&menuId=45&tid=71&bid=12&division=001&ano=1456>
- [10] Y. N. Kang & M. H. Lee. (2016). Single-Person Households in South Korea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34, 45-56.
- [11] J. B. Kim & K. D. Cho. (2011). The effect of family members on depress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personal characteristics. *The Korean Public Health Association*, 2011, 52-52.
- [12] M. S. Jang. (2015). Legislative Measures against Increase of Single Women Household. *Ewha Journal of Gender and Law*, 7(2), 1-32.
- [13] H. H. Lee, H. J. A & Y. T. Cho. (2010). A Qualitative Study on the Process of Rural Married Immigrant Women's Participation as a Community Resident.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0(34), 133-157.
- [14] J. H. Kim & A. N. L. (2010). Social capital level and promotion plan of marriage migrant women.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ance Studies*, 20(3), 51-87.
- [15] G. Veenstra. (2000). Social capital, SES and health: An individual level analysi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50(3), 619-629.
DOI : 10.1016/S0277-9536(99)00307-X
- [16] J. W. Choi. (2010). *The relationships among participation motives,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exercise adherence of sport participants*.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 [17] H. K. Baek. (2012). Relationship among Participation Motivation, Self-efficacy, Self-respect & Ceaseless Participation Intention of College Students in Mind Growth Program.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0(7), 59-67.
DOI : 10.14400/JDPM.2012.10.7.059
- [18] H. Y. Jeong. (2018). *Influence of Social Support on Involvement on the Continuity of participation in education and Self-Efficacy for Adult Learner*. Master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Seoul.
- [19] Statistics Korea. (2012).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Single House in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2/2/index.board?bmode=read&bSeq=&aSeq=269194&pageNo=4&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Target=title&sTxt=
- [20] H. Y. Kim, et al. (2007). A survey on family consciousness and living conditions of non-married single households. *Research Report of Korea Women's Policy Institute*, 2007(10), 2-314.
- [21] E. Y. Kang, M. J. Chin & S. W. Ok. (2010). An Exploratory Study on the Factors Related to Women's Voluntary Ever-Singleness: Focusing on Marriage and Family Value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8(2), 135-144.
DOI : 10.6115/khea.2010.48.2.135
- [22] M. L. Byeon, et al. (2008). *Single person household and urban policy in Seoul*. (pp.1-175), Seoul: The Seoul Institute. <https://www.si.re.kr/node/24412>
- [23] J. H. Ban. (2012).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single-person households. *Korea Labor Institute*, 85, 55-67.
- [24] KB Financial Group Inc. Management Institute. (2018). *2018 Korea, One-person households report*. https://www.kbfg.com/kbresearch/index.do?alias=report&viewFunc=research_details&categoryId=1&boardId=105&articleId=1003700
- [25] S. Y. Seo. (2017). *Differences in life satisfaction levels of one-person households across generations :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Master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 [26] Hayes, S. C. (2005). Eleven rules for a more successful clinical psycholog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1, 1055-1060.
DOI : 10.1002/jclp.20136
- [27] K. S. Clayton. & R. A. Chubon. (1994). Factors associated with the quality of life of long-term spinal cord injured persons.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75 (June), 633-638. <https://www.ncbi.nlm.nih.gov/pubmed/8002760>
- [28] M. Kreuter, A.-G. Dahllöf, Gudjonsson, G., M. Sullivan & A. Siösteen. (1998). Sexual adjustment and its predictors after traumatic brain injury. *Brain Injury*, 12(5), 349-368.
DOI : 10.1080/026990598122494
- [29] S. M. Woo. (2005). *A Study A Study on the Effects Effects of Social Participation Participation Participation on Quality of Quality of Life among Persons Persons with Physical with Physical Physical Disabilities*. Master dissertation, University of Seoul, Seoul.
- [30] S. M. Ryu. (2004). A Study on the Effects of Social Participation on Quality of Life among Women Disabilities. *Yonsei social welfare review*, 11, 100-129.
- [31] B. S. Kim. (2007). Path Analysis of Determinant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of the Disabled Person : Focused on the environmental factors and the degree of social participation.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 Welfare Policy*, 0(28), 5-28.
- [32] E. R. Paik. (2003).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Quality of Life of the Physically Disabled Persons : Focused on the environmental factors and the degree of social integration*. Doctoral dissert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Gyeonggi-do.
- [33] S. I. Choi. (2016). *The Impact of the Social Capital on Quality of Life to Elderly People Participating in the Elderly Job Supporting Program: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 of Continuance Will*. Doctoral dissert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Gyeonggi-do.
- [34] Y. G. Lee & S. I. Choi.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Quality of Life to the Elderly People Participating in the Elderly Social Activities.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cience*, 20(2), 151-180.
- [35] J. K. Kim, H. S. Kim & S. J. Park. (2017). The Effect of Occupational Participation on the Quality of Life and Self-Esteem of the Elderly. *The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for the Aged and Dementia*, 11(1), 21-28.
- [36] S. W. Kim & H. S. Cho. (2015). The Study on the Effects on Life Satisfaction and Social Participation Related Spending of the Elderly and Older Consumers. *Consumer policy and education review*, 11(3), 189-211.
- [37] J. B. Seo & I. M. Hee. (2018).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ocial Participation, Social Support, Empowerment and Quality of Life in Vietnamese Migrant Women in Jeonbuk. *Journal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13(2), 157-181.
- [38] S. O. Kim, H. S. Lim & G. C. Jeong. (2015). Moderating Effect of Support from Spouse and Famil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riage Adaptation and the Quality of Life of Marriage Immigrant Women: Difference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The Korea Contents Society*, 15(10), 253-266.
DOI : 10.5392/JKCA.2015.15.10.253
- [39] H. R. Moon. (2016). A Study on the Influential Factors to the Quality of Life of Married Immigrant Women. *Public policy review*, 30(2), 215-234.
- [40] A. H. Fine. (1996). *Leisure, living, and quality of life.*, In Renwick, R., Brown, I., & Nagler, M. (eds.). Quality of life in health promotion and rehabilitation. Sage Publication.
- [41] A. H. Barbara. (1997). *Promoting quality of life through leisure and recreation*. In Robert L.S., & Gray N.S. (eds.). AAMR.
- [42] C. H. Lee. (2018). A Study on Social Capital and Satisfaction of Elderly life.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6), 287-292.
DOI: 10.22156/CS4SMB.2018.8.6.287<42
- [43] M. H. Han & A. J. Yoo. (1996). The Relation of Str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to Problem Behavior.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17(1), 173-188.
- [44] L. Cohen & H. Hoberman.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DOI : 10.1111/j.1559-1816.1983.tb02325.x
- [45] E. F. Dubow & J. Tisak. (1989). The Relation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and Social Children: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Child Development*, 60, 1412-1423.
DOI : 10.1111/j.1467-8624.1989.tb04013.x
- [46] C. K. Kalecki & M. K. Demaray. (2002). Measuring perceived social support: Development of the child and adolescent social support scales(CASSS). *Psychology in the Schools*, 39(1), 1-18.
DOI : 10.1002/pits.10004
- [47] G. MacDonald. (1998). Development of a social support scale: an evaluation of psychometric properties. *Res Social Work Pract*, 8(5), 564-576.
DOI : 10.1177/104973159800800505
- [48] S. Cohen & T. A. Wills.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DOI : 10.1037/0033-2909.98.2.310
- [49] D. J. Mangen & W. A. Peterson. (1982). *Research instruments in social gerontology: Social roles and social participation*. Minnesota: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50] J. W. Park. (1985). *A study to Development a scales of social Support*.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51] S. G. Min et al. (2002). Effects of Haloperidol and Risperidone on the Subjective Quality of Life in Stable Chronic Schizophrenic Patients.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41(1), 76-83.
- [52] R. B. Kline. (2016). *Methodology in the social sciences.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New York, NY, US: Guilford Press.
- [53] P. M. Bentler & D. G. Bonett. (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88, 588-606.
DOI : 10.1037//0033-2909.88.3.588
- [54] P. M. Bentler.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 238-246.
DOI : 10.1037//0033-2909.107.2.238
- [55] Browne, M.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Bollen, K.A. & Long, J.S.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bury Park, CA: Sage, 136-162.
- [56] J. K. Ford, R. C. MacCallum & M. Tait. (1986). The application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 applied psychology: A critical review and analysis. *Personnel*

- Psychology*, 39(2), 291-314.
DOI : 10.1111/j.1744-6570.1986.tb00583.x
- [57] K. A. Lee & J. H. Cho. (2013). A Study on the Spatial Distribution Change of One Person Households: The Case of Seoul -Focus on Change of Age, Gender-. *Research institute of Real Estate and Urban Studies*, 6(1), 23-50.
- [58] J. A. Gwon, Y. J. Lee & H. K. Choi. (2007). Housing Demand Forecast and Supply Activation Plan for Single-Person Households. *Research Report*. 2007(4). 1-91. <https://www.earticle.net/Article/A121669>
- [59] M. S. Park & J. C. Lee. (2018). Measures to cope with housing policy with increase of one person.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662, 1-8.
- [60]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17). Population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of single-person households. *NABO Economic Trends & Issues*, 62, 38-47.
- [61] E. B. Palmore. (1981). *Social Pattern in Normal Aging: Findings from the Duke Longitudinal Study*.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312-314.
- [62] H. H. Lee. (2010). A Qualitative Study on the Community Participation Experiences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 Rural Area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2(3), 219-245.
https://www.krm.or.kr/krmnts/search/detailView.html?dbGubun=SD&category=Report&m201_id=10017899&ocal_id=10018265
- [63] H. Murphy. (2003). Exploring leisure and psychological health and well-being: Some problematic issues in the case of Northern Ireland. *Leisure Studies*, 22, 37-50.
<https://www.tandfonline.com/doi/abs/10.1080/02614360306570>
- [64] B. Carpenter. (2001). *Families in context: Emerging trends in early intervention and family support*. London: Davd fultion publishers.
- [65] A. P. Kaiser & T. B. Hancock. (2003). Teaching parents new skills to support their young children's development. *Infants and young children*, 16, 9-21.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32198008_Teaching_Parents_New_Skills_to_Support_Their_Young_Children's_Development
- [66] M. S. Yang & B. H. Choi. (2001). Relationship between Postpartum Depression and Parenting Stress of Mother with Infant. *Institute of Living Improvement and Practical Science*, 5(1), 79-87.
- [67] J. H. Moon. (2017). *The Effects of Family Function on Social Support, Disability Acceptance, Sense of Economic Stability in Parents of Handicapped children`s Parents*. Master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Seoul.
- [68] B. W. Lemon, W. L. Bengston & J. A. Peterson. (1972). An exploration of the activity theory of aging: Activity type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in-movers to a retirement community. *Journal of Gerontology*, 7, 511-523.
DOI : 10.1093/geronj/27.4.511
- [69] J. H. Kim. (1996). A plan for community participation in local welfare. *Criticism Social policy*, 1, 163-180.
- [70] S. Y. Kim. (2017). The Effect of Social Workers' Convergent Job Competence Enhancement Working in a Social Welfare Facility on Quality of Life.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4), 113-119.
DOI: 10.22156/CS4SMB.2017.7.4.113
- [71] L. S. Chon. & H. J. Cho. (2017). A Convergence Study on Social Support and Life's Satisfaction of the Marriage Immigrant Wome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6), 359-368.
DOI : 10.15207/JKCS.2017.8.6.359
- [72] H. S. Kim. & S. S. Kim. (2018). A Converged Study on the Influence on the Quality of Life for Early and Late Middle-aged Me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6), 133-145.
DOI : 10.15207/JKCS.2018.9.6.133

박민정(Min-Jung Park)

[학력]



- 2009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문학석사)
- 201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문학박사)
- 2018년 2월 ~ 현재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차장
- 관심분야 : 가족, 가정관리, 여가

· E-Mail : park6981@hanmail.net